



순교자의 소리

The Voice of the Martyrs

2026.2



북한 _ 복음 사역의 날은 바로 오늘!

사역 패키지를 받아 복음 자료를 읽고 있는 북한 노동자들(신분 미공개)

지난 25년간 한국 순교자의 소리는 복음을 중심으로 북한 사역을 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우리는 인권이나 인도적 지원에 초점을 맞추거나, 북한 주민들이 남한으로 탈출하도록 돕는 방식으로 사역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직 복음 전도와 제자 양육에만 집중합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는 사실 오래 전, 우리가 북한 사역을 시작할 당시 북한 지하교인들이 직접 요청한 것이었습니다.

현장에서 북한 사람들을 만나면 우리는 그들의 비극적인 이야기를 듣는 데 그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을 통해 선하신 계획을 이뤄가시는 방법을 성경적 관점으로 보고 이해할 수 있게 훈련합니다. 이러한 양육의 결과로 하나님은 북한 기독교인들을 신실한 증인으로 세워주셨고, 이제는 그들 스스로가 다른 북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며 이들을 제자로 삼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는 북한 내 주민들, 성매매로 중국에 팔린 북한 여성들, 중국 및 러시아를 비롯해 세계 각지로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과 남한에 정착한 탈북민들을 위해 사역하고 있습니다.

북한을 위한 복음 사역은 미래 언젠가의 일이 아니라 바로 지금, 실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이번 소식지에서는 북한에서 순교한, 신실한 복음의 증인들을 만날 뿐 아니라, 여러분의 후원으로 순교자의 소리가 어떻게 그들을 직접 돌보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들어볼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북한 사람들이 있는 가장 험난한 곳을 뚫고 들어가기 위해 “결코 매이지 않는”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사용하시는지에 대해서도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순교자의 소리 웹사이트에서는 하나님이 탈북민들을 통해 최초의 한국어 성경인 존 로스 John Ross 성경을 어떻게 읽기 쉬운 현대어로 새롭게 번역하게 하시는데 대해서도 자세히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알려지지 않은 북한 순교자들

우리가 뉴스에서 보는 극적인 북한 순교자 이야기들은 대부분 사실이 아니다. 일반적으로 북한에서 성경을 소지하다 적발된 사람은 체포되어 강제수용소로 끌려간다. 이는 그다지 극적이지 않아서 뉴스에도 나오지 않는다. 그렇게 전 세계 기독교인은 결코 그들의 소식을 들을 수 없게 된다.

몇 년 전, 탈북민 여성 박 선생이 남편에 대해 이야기해 준 적이 있었다. 그는 북한 지하교인이었는데, 중국에서 한 가족을 만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 듣고 북한으로 돌아온 후 하나님과 성경에 대해 끊임없이 이야기했다고 한다.

박 선생의 남편은 자신의 담대한 신앙 때문에 온 가족이 혹독한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알면서도, 적어도 20명이 넘는 사람에게 예수

님의 메시지를 전했다. 당시 박 선생은 그가 미쳤다고 생각했었다고 우리에게 말했다.

결국 누군가 그의 전도 활동을 신고했다. 어느 날 밤, 박 선생 부부의 집에 보위부가 들이닥쳤고, 두 사람 모두 체포되었다. 박 선생은 보위부에 친척이 있었기 때문에 노동 교화소로 보내져 6년을 복역했다. 그녀의 남편은 즉각 강제수용소로 끌려갔는데, 이후 소식이 끊기고 말았다.

체포. 강제수용소행. 소식 두절.

이것이 바로 북한 정부가 지하교인들을 다루는 전형적인 방식이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질 일도 아닌, 대부분의 매체가 보도할 가치조차 없다고 여기는 일인 것이다. 그렇게 세상은 이들 북한 지하교



▶ 한 북한 기독교인이 순교하면서 사진 속 세 자녀를 남기고 떠났다. 이 순교자의 이야기도 전 세계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았다.

▶ 북한에서 남편이 순교당한 박 선생이 순교자의 소리를 사무실에 설치된 순교자 연대표에서 ‘공산주의 치하의 알려지지 않은 순교자’ 명판을 바라보고 있다.



1921~현재

인들에 관해 아무 이야기도 들을 수가 없게 된다. 그렇게 그들은 알려지지 않은 북한의 순교자가 되어버리고 말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분명히 알고 계신다!

“나는 성경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순교자의 소리는 최근 수지라는 이름의 북한 10대 소녀에 대해 알게 되었다. 수지와 그 가족은 모두 북한 주민으로, 기독교인이었다. 수지의 가족이 중국에서 북한에 돌아온 지 얼마되지 않아 당국은 이들 가족이 중국에서 구입해 온 밀수품을 찾기 위해 집을 수색했다. 추정하기로 애초 그들이 찾던 것은 낚시대였는데, 그들이 발견한 것은 성경책이었다.

가족 전체는 즉시 보위부에 체포되어 심문을 받았고, 아버지는 수지와 그 오빠들은 성경과 전혀 무관하며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그들을 설득하는 데 성공했다. 수지는 오빠들과 함께 나중에 풀려났다.

심문 중 한 요원이 수지의 어머니에게 “성경을 부인하면 풀어주겠다”고 했다. 하지만 수지의 어머니는 이렇게 답했다. “성경에는 잘못된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날 이후 아무도 수지의 아버지와 어머니의 소식을 들을 수가 없었다. 심지어 지금까지도.

수지의 부모는 성경을 부인하길 원치 않았다. 두 사람은 끝까지 신실했다. 박 선생이 남편에 관해 말했던 것과 똑같이, 수지의 부모 또한 체포되었고 이후 아무도 두 사람의 소식을 듣지 못하게 되었을 뿐이다.

이는 현재 한국에서 탈북민 교회를 섬기고 있는 탈북민 이 목사의 이야기와도 유사하다. 이 목사의 아버지는 북한 지하교인으로, 북한에서 목숨을 걸고 지하 선교 활동을 이어가던 분이였다.

이 목사가 겨우 아홉 살 무렵 어느 밤, 아버지가 갑자기 북한 당국에 체포되어 끌려갔다. 이 목사의 아버지는 ‘체제 전복을 위한 사상 활동’에 가담한 혐의로 체포되었다. 아버지의 행방조차 알 수 없었던 이 목사와 가족들은 깊은 두려움과 무력감에 빠졌다. 그리고 나중에 서야 이 목사와 가족들은 마침내 아버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알게 되었다. 아버지는 신앙을 부인하고 목숨을 건질 기회를 제안 받았지만, 그 제안을 뿌리치고 감옥에서 이미 숨을 거둔 후였다.

가족들은 ‘반동분자’의 가족이란 낙인과 의심에 휩싸인 채 북한에서의 삶을 이어가야 했다. 절망에 빠진 이 목사는 처음에 하나님이

▲ 북한의 숲속에서 예배 드리는 차덕순과 북한 지하교인들. 한때 북한의 알려지지 않은 순교자였던 차덕순의 순교는 북한 정부의 선전 영상을 통해 세상에 드러나게 되었다.

자신을 버리셨다고 믿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탈북을 결심하고 위험천만한 여정을 거쳐 남한으로 건너왔다.

아버지를 잃은 트라우마로 인해 한때 기독교에 환멸을 느끼기도 했지만, 한국에 온 후 이 목사는 결국 신앙으로 돌아왔다. 이후 그는 목사의 소명을 확신하고 신학교를 졸업했으며, 탈북민 여성과 결혼하여 탈북민 교회의 목사가 되었다.

우리가 도울 수 있는 방법

앞서 이야기된 내용들은 한국 순교자의 소리의 사역이 왜 그토록 중요한지 보여준다. 북한에서 한 사람이 순교하면, 이는 곧 그로 인한 트라우마를 가진 가족들이 남겨진다는 의미가 되곤 한다. 어떤 경우, 남은 가족들은 이미 세상을 떠난 순교자처럼 강한 믿음을 갖지 못해 큰 혼란과 두려움에 빠지기도 한다.

남은 가족들은 일상적 필요를 채워줄 실질적인 도움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결코 그들을 잊지 않으셨음을 누군가 일깨워 주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들이 사랑하던 가족들의 이야기는 널리 알려지지 않는다. 순교자들은 그저 사라져버렸고, 다시는 소식조차 전해지지 않는다. 순교자의 가족들은 이렇게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무언가를 이해해야만 하는 상황 속에 놓이게 된 것이다.

한국 순교자의 소리는 북한 기독교 순교자와 수감자 가족들의 일상적 필요를 채워줌으로써 그들을 직접 지원한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지원에서 더 나아가, 가족들이 자신이 겪은 일과 트라우마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도록 돕는다. 이는 단순히 가족을 잃은 상실을 애도하기 위함이 아니라, 치유를 경험하고 박해 속에서도 사랑하는 가족들을 자랑스러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대개의 경우, 가족들의 요청에 따라 우리는 이러한 과정을 조용히 진행한다. 거창한 행사도, 뉴스 보도도 하지 않는다. 그래서 전 세계 기독교인들 역시 이 사실을 알지 못한다.

죽기까지 신실했던 그들의 사랑했던 가족은 이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분명 그들을 잘 알고 계신다.



▲ 성경을 갖고 있다 적발된 북한 주민의 심문 장면을 재연한 사진

2026년 2월 기도 달력

 facebook.com/VOMKorea.kr
 instagram.com/vomkorea
 youtube.com/voiceofthemartyrskorea

| SUNDAY | MONDAY | TUESDAY | WEDNESDAY | THURSDAY | FRIDAY |
|----------------------------------------------------------------------------------------------------------------------------------------------------|------------------------------------------------------------------------------------------------------------------------------------------------------|-----------------------------------------------------------------------------------------------------------------------------------------------------|-------------------------------------------------------------------------------------------------------------------------------------------------------|-----------------------------------------------------------------------------------------------------------------------------------------------------|--------|
| 1 | 2 | 3 | 4 | 5 | 6 |
|  카타르 카타르 교회가 성장하도록 (행 2:46-47) |  리비아 사역자들이 창의적인 방법으로 성경을 배포할 수 있도록 |  우간다 핍박받는 성도들, 특히 더 혹독한 핍박을 받는 이슬람 개종자들을 위하여 |  부탄 기독교인들이 성경과 기독교 자료를 더 많이 접할 수 있도록 |  베트남 복음의 빛이 공산주의의 거짓말과 애니미즘의 속박을 몰아내도록 | |
| 8 | 9 | 10 | 11 | 12 | 13 |
|  말레이시아 무슬림들이 예수님께 관심을 갖고 기독교 매체를 통해 진리를 접하도록 |  키르기스스탄 법적 규제가 심하지만 성도들은 계속 신실하게 모여 예배하고 교제하도록 |  브루나이 이슬람 교육이 의무가 된 이 나라 청소년들이 가정과 교회에서 양육받도록 |  시에라리온 악마 숭배 거부로 가족에게 살해 위협을 당한 미라클과 조지에타를 위해 |  베냉 성도들, 특히 시골 지역 성도들이 성경을 더 많이 갖게 되도록 | |
| 15 | 16 | 17 설날 | 18 | 19 | 20 |
|  소말리아 믿음 때문에 남편에게 버림받은 하와가 하나님의 임재로 위로를 얻도록 |  니제르 더 많은 사람이 현지 방언으로 된 오디오 성경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도록 |  예멘 예멘 기독교인들이 동포들에게 담대히 복음을 선포할 수 있도록 |  튀르키예 총인구 대비 기독교인은 1% 미만이지만, 현지 교회들이 계속 성장하도록 |  아프가니스탄 아프가니스탄 난민들 가운데 복음이 계속 확산되도록 | |
| 22 | 23 | 24 | 25 | 26 | 27 |
|  토고 믿음 때문에 주민들에게 모질게 구타당한 아브라함 같은 성도들을 위해 |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같은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알게 되도록 |  라오스 믿음 때문에 가정과 마을에서 거부당한 소마니드와 싱, 동, 카에우를 위해 |  지부티 정부에서 인가해지지 않아도 기독교인들이 효과적으로 사역할 수 있도록 |  베트남 오토바이로 수천 km를 이동하며 오지에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들을 위해 | |



[사무실] 서울시 성북구 솔샘로 26, 지층 순교자의 소리
 후원계좌: 국민은행 463501-01-243303 예금주: 사)순교자의소리
www.vomkorea.com || 02-2065-0703

**지금 보고계신
순교자의 소리 무료 소식지,
아래 QR코드를 스캔하셔서
간편하게 신청하세요!**



| FRIDAY | SATURDAY |
|-------------------------------------------------------------------------------|------------------------------------------------------------------------------|
| 6 | 7 |
| <p>러시아</p> <p>정부가 전도를 규제할지라도 성도들은 신실하고 담대한 증인이 되도록</p> | <p>기니</p> <p>기니에서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p> |
| 13 | 14 |
| <p>라오스</p> <p>2024년 순교한 통감 필라반 목사 가족에게 위로와 힘 주시기를</p> | <p>베네수엘라</p> <p>성도들이 마르크스주의 게릴라들에게 예수님을 담대히 증언할 수 있도록</p> |
| 20 | 21 |
| <p>모리타니</p> <p>믿음 때문에 괴롭힘과 체포를 당한 성도들이 위로받고 인내할 수 있도록</p> | <p>미얀마</p> <p>복음 선포를 이유로 체포된 목회자들에게 강건함과 담대함 주시기를</p> |
| 27 | 28 |
| <p>말라위</p> <p>핍박받는 야오족 성도들이 예수님의 몸 된 교회의 사랑, 돌봄을 경험하도록</p> | <p>차드</p> <p>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양육 훈련 자료를 더 많이 받을 수 있게</p>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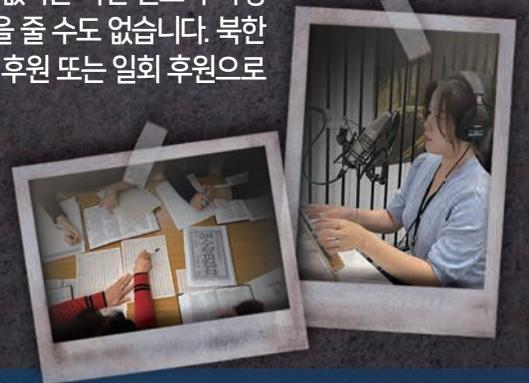
북한에서도 매이지 않는 하나님 말씀! 지금 함께하세요!

북한 정부는 복음에 문을 닫고 있지만,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 어디에도 매이지 않음을 증거합니다(딤후 2:9). 우리는 2025년, 이 말씀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 북한내, 역대 최대 규모의 성경이 배포되었습니다
- 성경 라디오 방송을 더 늘려 달라는 북한 내 청취자들의 요구에 부응해 다섯 번째 추가 라디오 방송 송출이 시작되었습니다!
- 한국땅 전역에서 80명 이상의 탈북민이 한국 최초의 번역 성경인 존로스 성경으로 제자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 북한 내 지하교인들은 체포시 강제수용소로 보내질 위협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계속해서 신실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 한국, 미국 및 자유 세계에서 계속 쇠락하고 있는 교회가 북한에서는 계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 현재,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많은 북한 주민들이 성경을 읽으며 그 말씀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26년 이 사역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동역이 필요합니다!

라디오 방송과 성경 모두 여러분의 지원 없이는 북한으로 보낼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지원 없이는 북한 순교자 가정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도 없습니다. 북한 사역을 위해 매월 정기 후원 또는 일회 후원으로 함께해주세요! 이 귀한 사역에 동역하기 원하시는 한국 교회나 성도님은 아래 두 가지 중 하나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순교자의 소리 웹사이트: www.vomkorea.com/donation (납부 유형에서 '북한' 선택)
2. 계좌이체: 국민은행 463501-01-243303
예금주: 사)순교자의 소리
(본인 성명 옆에 '북한'라고 기재해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일반 후원금으로 사용됩니다.)



scan me!



한국기독교재정투명성협회
Christian Council for Financial Transparency Korea
1호 인증



북한 노동자들

인권 말살의 비극을 복음의 기회로 바꾸신 하나님

유엔 전문가 패널 UN Panel of Expert의 2024년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정부가 전 세계 약 40개국에 파견하는 북한 노동자 수는 약 10만 명에 달한다. 이 노동자들은 북한 정부에 연간 약 5억 달러(한화 가치로 약 7,340억 원)를 벌어들여 주고 있다.

새로운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는 대단히 우려스러운 일이다. 2017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르면, 모든 북한 출신 해외 노동자는 늦어도 2019년 12월 22일까지 북한에 송환되어야 했다. 이들 북한 해외 노동자들이 벌어들인 돈이 북한 내 대량살상 무기 개발을 지원하고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북한 해외 노동자들의 임금은 최대 90%가 북한 정부에 귀속된다. 여기에 더해 북한 해외 노동자들을 감독하는 관리자들 역시 추가로 돈을 챙긴다. 한 북한 노동자는 1년 내내 일해도 300달러도 벌지 못한다고 우리에게 말해주었다.

세계 많은 국가가 유엔 결의를 그냥 무시하거나 제재를 회피하기 위해 기발한 방법을 고안해내기도 했다. 북한 인권 데이터베이스 센터 Database Center for North Korean Human Rights는 러시아가 북한 노동자들에게 허위로 학생 비자나 관광 비자를 발급함으로써 유엔 제재를 회피하고 있음을 발견했다. 현재 러시아에는 약 15,000명의 북한 노동자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 노동자들의 생활 환경은 언제나 열악했지만, 유엔 제재 이후

급격히 악화되었다. 러시아와 중국 같은 국가들이 제재 회피를 위해 자국 내 북한 노동자의 존재를 은폐하려 들기 때문이다. 이렇게 관리의 투명성이 사라진 결과 북한 노동자들의 근로 환경은 더욱 악화되고 말았다.

북한 인권 데이터베이스 센터에 따르면, 이 북한 노동자들이 처한 현실은 국제형사재판소 International Criminal Court가 일명 ‘노예화’로 규정한 반인도적 범죄 행위의 법적 요건을 충족한다.

하지만 이토록 처참한 인권 비극을 하나님은 더 많은 북한 주민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로 바꾸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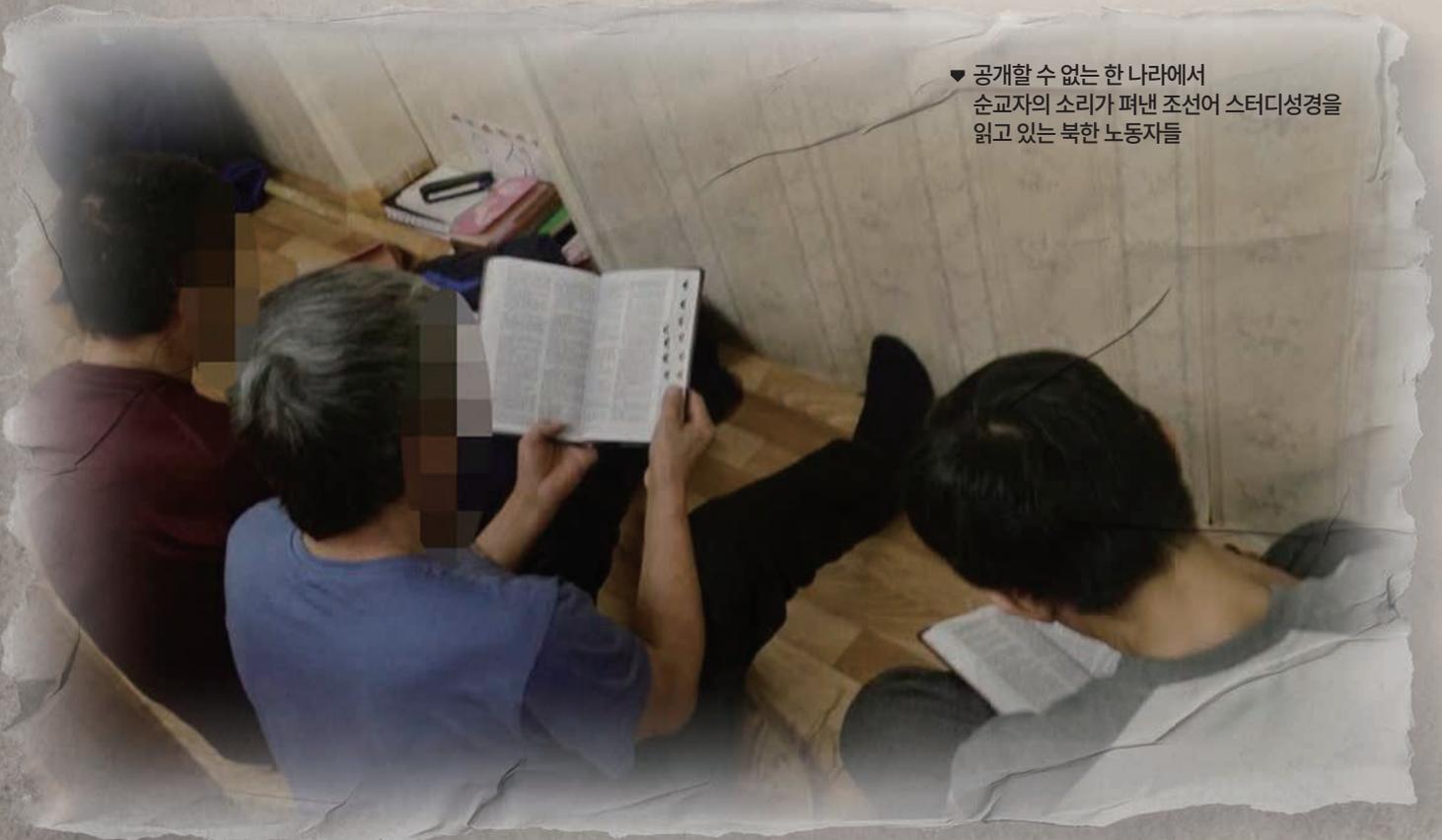
예를 들면, 우리 현지 동역자들은 중국 내 북한 노동자들에게 성경이 담긴 기기가 포함된 사역 패키지를 배포할 때, 그들의 공장 관리자들과 접촉한다. 관리자들은 사역 패키지에 대해 노동자들을 기분 좋게 하는 선물 정도로 여긴다. 공장 시설 내에서 사역 패키지와 성경을 배포하는 일은 위험할 수 있어서, 관리자들은 노동자들을 다른 장소로 데리고 나가 물품들을 나눠준다.

몸은 아프지만 소망을 품고 고향에 돌아간 북한 노동자들

한 북한 노동자는 MP3 성경이 든 사역 패키지를 받은 후 우리에게 이 짧은 편지를 보내왔다.

“주신 것 맛있게 먹었습니다. MP3 성경도 받았고요. 감사합니다.”
한국 순교자의 소리는 매년 4만에서 5만 부의 조선어 성경을 북한

▼ 공개할 수 없는 한 나라에서
순교자의 소리가 퍼낸 조선어 스테디성경을
읽고 있는 북한 노동자들



내 거주하는 주민들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일하는 북한 노동자들 및 중국 내 성매매로 팔려온 북한 여성들에게 배포하고 있다. 이 성경책 중 일부는 중국, 북한, 그리고 북한인들이 거주하는 다른 국가들의 지하교인들이 개별적으로 손에서 손으로 직접 전달한다. 이 중 일부는 성경을 전달받고서 우리에게 감사 편지를 보내오기도 했다.

지난해 중국에 일하러 나와있던 북한 여성으로부터 두 번째 감사 편지가 도착했다. 그녀는 성경 내용에 ‘충격을 받았다’고 표현하면서도, 현재 중국에서 노동자로 일하는 동안 ‘목숨을 걸고’ 아주 세심하고 주의 깊게 성경을 살펴보며 공부 중이라고 전해왔다.

편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올해 초 조선에서 새로 나온 사람입니다. 믿는 조장 동지에 게로부터 전달받은 성경 말씀과 하나님에 관한 것에 매우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너무나도 뜻밖이라 무슨 말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조선에서는 목숨을 바쳐야 하는 매우 위험한 종교입니다. 그렇지만 당이 왜 이토록 우리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모르게 강요하는지 의문스럽고 그래서 나는 이 성경에 대해서 목숨을 걸고 알아가려고 합니다. 두렵지만 용기를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다른 편지 한 통을 읽으면서 우리는 2025년, 병든 북한 해외 노동자 집단이 북한으로 송환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 편지는 우리가 당시 보낸 성경과 기독교 자료에 감사하는 편지였다. 편지를 쓴 북한 노동자는 “안타깝게도 (송환된 노동자들은) 북에서 매우 힘든 삶을 살겠지만, 그중에는 소망을 품고 고향으로 돌아간 여성들이 많습니다”라고 했다.

편지는 이렇게 이어진다.

이것은 그 여성들이 선생님들이 보내준 성경과 하나님에 대한 여러 가지 것들을 보고 듣고 변화되어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났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조선에 들어가 치유받고,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을 전하길 기도합니다.

또한 우리는 2025년, 북한 내에서 성경을 받은 사람에게서도 감사 편지를 받았다. 해당 편지는 북한 내부 상황이 전반적으로 ‘매우 심각하다’고 전하고 있다.

편지는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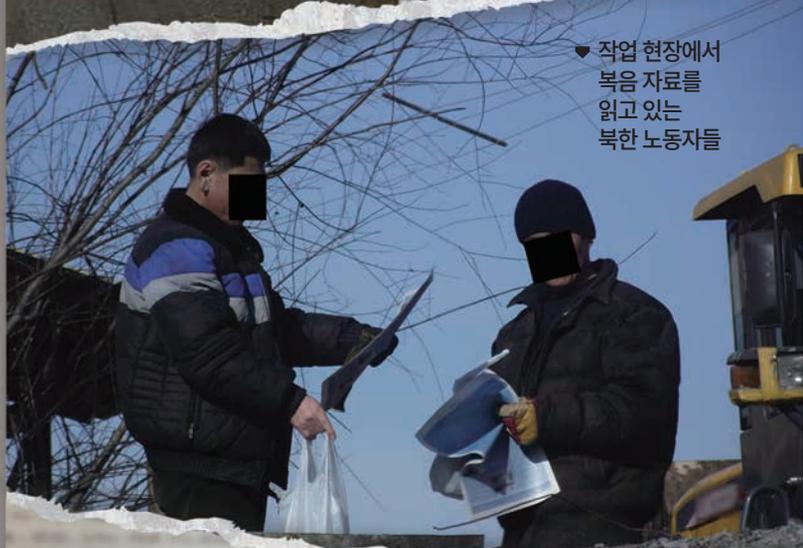
인민들 모두 아우성입니다. 믿을 분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조선 사람을 위해 성경과 물건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선어 성경을 받은 북한 사람들의 편지를 엄선하여 이렇게 공개하는 이유는 조선어 성경과 기독교 자료를 처음 받는 북한 주민과 북한 지하교인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기 위해서이다. 하지만 더 나아가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오늘날 북한 내부와 해외에 흩어져 있는 북한 사람들에게 성경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하는데 이 편지들이 큰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 기독교인들은 때로 북한 주민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선교 활동이 북한 대학에서 강의를 하거나 북한 정부가 승인한 사업을 통해 인도적 지원을 위한 기금을 보내는 일, 혹은 북한에 앞으로 복음의 문이 ‘열릴’ 미래를 준비해 선교 계획을 세우고 훈련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일만이 가능하다고 잘못 생각한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2장 9절에 기록한 대로, 하나님 말씀은 매이지 않는다! 성경은 오늘날에도 북한 내부에 계속해서 유입되고 있으며, 해외에서 일하는 북한 노동자들에게도 전해지고 있다.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더 많은 북한 주민이 성경을 읽고 있으며, 그 말씀으로 인해 변화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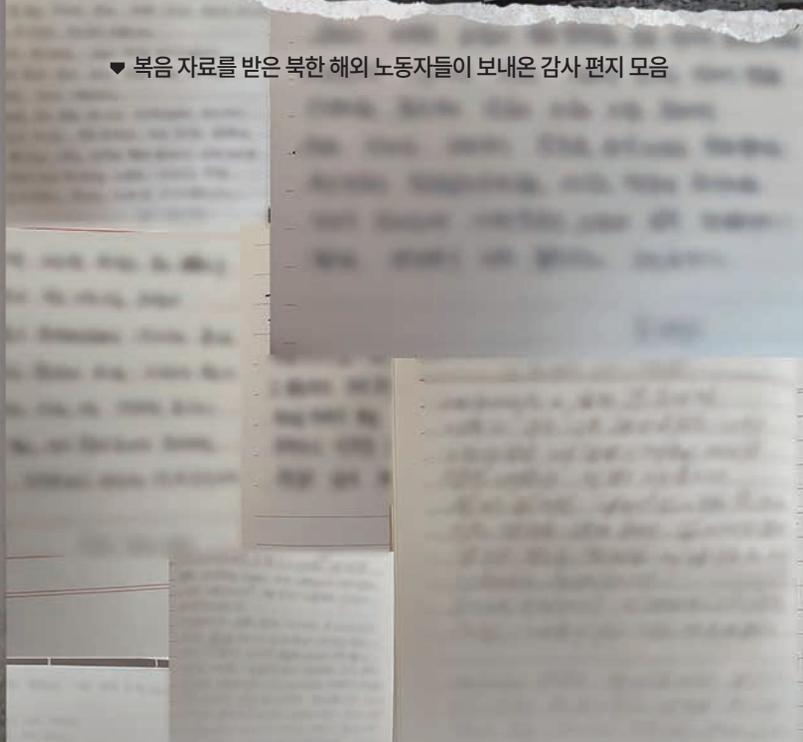


▲ 공장에서 일하는 북한 노동자들. 북한 노동자들은 전 세계 40개국에 파견되어 일하고 있다.



▼ 작업 현장에서 복음 자료를 읽고 있는 북한 노동자들

▼ 복음 자료를 받은 북한 해외 노동자들이 보내온 감사 편지 모음



존 로스 성경 역사극 공연



QR코드를 스캔하시면
전체 공연 영상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순교자의 소리 사역자들과 탈북민 선교사 훈련 학교 학생들의 창작극,
『존 로스 성경 역사극』을 공연하며 조선에 최초로 들어온 성경이야기를 전합니다!
QR코드로 존 로스 성경 역사극을 만나보세요!

존 로스 성경 역사극은 조선에 성경을 들여오기 위해 큰 희생을 감수한 조선 초기 기독교인들의 실화를 담고 있지만 오늘날에도 북한 기독교인들은 여전히 동일한 대가를 치르고 있다. 그것이 이 역사극에 담긴 진정한 메시지이다. 오늘이 바로 북한에 복음을 전해야 하는 날이다. 그리고 우리는 1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북한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기 위해 기꺼이 자신의 생명을 드린 신실한 증인들과 함께 해야 한다.



관람 소감

“하나님이 암울한 조선시대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존 로스와 조선인들을 사용하여 성경을 번역하고 밀반입시켰다는 역사의 뿌리를 몰랐습니다. 감동이고 놀라웠고 전율을 느꼈습니다. 우리나라에 엄청난 이야기가 뿌리 내리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보부상에 불과한 사람들을 변화시켜 목숨을 걸고 성경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바꾸셨는가를 보면서 많은 은혜가 되었습니다. 선생님들의 연기가 너무 뛰어나고 재미있었습니다.”

에릭 폴리 목사의 <신간>을 소개합니다!



실제적이고 단순하면서도 강력한
제자훈련 방법을 제시하는 책
『모든 것을 드리는 삶』 ①,②

에릭 폴리 지음

<모든 것을 드리는 삶>은 마태복음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었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을 개인, 가족, 셀 그룹, 교회가 순종할 수 있도록 실제적이고 단순하면서도 강력한 제자훈련 방법을 제시하는 책이다. 그리스도의 10가지 “사랑의 실천사역”(선행하기, 떡 나누기, 집을 열기, 치유하기, 용서와 화해 등)과 7가지 “경건의 행위”(내적인 영적 훈련, 즉 성경말씀 찾기, 기도, 예배, 배플기 등)의 의미를 성경 원문에서부터 배우고 실천하게 도움으로써 기독교인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의 명령을 실천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도록 한다. 12개월 동안 각 주제를 한 달씩 배우고 실천하는 과정을 매년 반복하면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다.

기독교인이라면, 꼭! 이 책을 읽어야 합니다!

『복음』

에릭 폴리 지음



순교자의 소리 지하신학교에서 강의한 ‘복음’이 드디어 책으로 출간되었다. 기독교인이라면 누구나 알아야 하는 기본적인 ‘복음’의 내용을 깊이 있게 배움으로써 예수님을 우리 죄를 위해 돌아가신 분, 그 이상의 온전한 의미로 이해하고 그분의 재림을 향한 소망을 꿈꾸게 한다.

순교자의 소리 <도서>와 <영상>을 통해 북한사역에 대해 배워보세요.

북한 사역의 이해를 돕는 책



영웅의 여정
10,000원

현숙 폴리 대표와
탈북민 10명의 간증.
“영웅은 아직 당신
안쪽에 있다!”



믿음의 세대들
10,000원

기독교에 가장 적대적인
북한에서 3대에 걸쳐
신앙을 지켜온
배씨 가족의 이야기

복음 통일을 위한 첫 걸음, 조선어 성경 읽기!



조선어 스테디 성경
(큰글자)
30,000원



조선어 스테디 성경
(창세기/신약)
10,000원



21세기 존 로스 독자판
누가복음전서
10,000원

영상으로 만나는 북한 사역과 북한 교회

“그들의 목소리, 상철” 북한 지하교인과
한층록 목사의 이야기를 담은 단편 영화



큐알코드를 스캔하시면
전체 공연 영상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